

여성취업 직종차별 심각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취업상의 남녀차별이 금지됐지만 이법이 여성의 취업기회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서울을 비롯,釜山 大邱 光州 大田 仁川 등에서 이 법의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연데 이어 오는 10월12일에는 노동당에서 이 법의 토론회를 회장과 실명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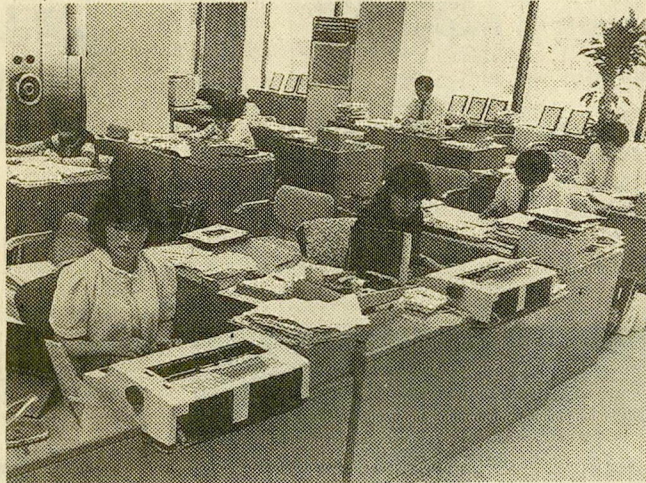
勞總 대책토론회서 지적

지난 20일 오후 서울永樂 별문제가 여직의 심각하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여성」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개선대책」토론회에서는 여성 채용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男女고용평등법 「관행」개선효과 없어

禁女직종 아직 많아 「時間制」편법도

한국외국어대 李銀榮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취업자의 절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에게 특이한 직종의 시간제 노동조건은 직종에만 고용형태는 여성취업의 상당 기회가 주어진다」는 직종차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지 2년만이 지났으나 아직도 고용상에서의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완전 취업화하는 한편 여성을 더욱 단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아 고용에서의 남녀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실제로 노동에서 지난달 여성노출현 1천8백80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채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신이 한달의 여자만 하는 일이라면 다른 일에 「그렇다」가 45.1% 「여자만 하는 일」이라고 할 자가 주류하다. 남자가 할까한다」가 29.9%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가 분업이 종사한다」는 19.1%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이중공채제를

을 통해 인사한 1천6백14명의 채용결과를 보면 △서류상사와면접 58.1% △면접 17.3% △필기시험 12.3% △서류상사 8.7% 등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채용시면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노동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면서도 여성노동자의 상근직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즉 여성의 반나절노동에 대해 88%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55.2%는 반나절노동이 정착되면 회사는 여성을 반나절노동자로만 채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토론회에선 여성신문사대표 李啓卿씨는 여성에게 하위직급만을 할애한다든지 취업조건이 낮은 여성을 고용한다든지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성차별유형이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을 개정하여 차별을 받았을 경우 여성들은 법원부채를 통해 차별을 불식시키고 이 법이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金眞敬기자>